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5주간

제5주간: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들어가는 말

우리는 유아기를 지나 어린이로 자라면서 단어와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와 함께 사물을 보는 법, 가치를 매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가치와 열망,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할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시할지 등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모난 정이 돌 맞는다. 그 사람은 대스타야.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부색을 물려받듯이 편견들을 물려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떤 패션이나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나 지난 일들을 옛일로 넘기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소위 철드는 시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비이성적인 것들이 쌓여 갑니다. 성숙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입니다. 일상의 나날들에서는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와 내 안의 죄에 대해 생각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당신의 문화는 그런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진짜 자기다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쉽게 빨리 “진정한 열망”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열망들이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며 이것들이 완성과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실패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험을 예수님의 말씀이 확인해 줍니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마태 15, 19-20)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교리서는 이런 세상의 죄를 기쁜 소식의 이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89항 참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일으킨 우리가 무가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시편 51, 7)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들이

단지 인간적인 실수와 진보의 결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인 우리는 죄 때문이라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 주변이, 우리 자신과 세상이 파탄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탄 상태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인류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우리 세계관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악은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리라는 인류의 오만한 결정에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파탄을 이해조차 못합니다. “죄의 원천인 아담을 알려면 은총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88항) 그리스도가 아니면 혼돈과 파탄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대적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부서진 자아를 미워하지 않고도 인정하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철저히 악하지 않고 하느님 마음에 그래도 사랑스럽다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부서지더라도 사랑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고 우리 문화의 왜곡된 방식을 익히기도 전에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로마 8, 29)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주님은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로마 8, 30)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엘리베이터의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모습처럼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로마 8, 39) 우리가 홀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불러 주신 하느님 때문이지요.

기도 도움말

기도는 우리의 모든 능력들, 정신과 마음, 느낌과 자유의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때로는 주로 느낌으로 기도를 하며 관심거리와 사랑과 기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할 때처럼 어려운 느낌들을 마음에서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항상 관여가 됩니다. 예컨대 당신은 기도를 하기로, 멈추지 않기로 날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당신은 줄곧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고' 처음 시작할 때에 가졌던 관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도에 관해 유념할 또 한 가지. 때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다양하지요. 어려운 가족 관계를 두고 뭔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기도로 갖고 간 경우입니다.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여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긴장과 모순에 맞닥뜨려서 그에 대한 느낌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리해야 할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 상황 파악, 문제 해결 등을 기도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정신이 형클어졌거나 느낌과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창조주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깊은 사색을 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는 우리 신경(信經)의 풍요로운 내용을 음미할 때입니다. 예컨대, 앞 주간에 우리는 교회 전통에서 천지창조의 신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창조 과정이 창세기가 전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은 지금 이 순간까지 시간 안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숙고하였습니다. 창조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항상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주 힘든 신비 중의 하나인 '죄'를 기도 안에서 대면합니다. 죄가 '신비'일까요? 분명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잠깐 나쁜 생각에 빠진다고 해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당신 친구 한 사람이 고의로 작은 거짓말을 한다 한들 그것이 하느님께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악행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느님에 대한 잘못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측면이 아닐까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1요한 4,8)이시니까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하느님이 상처 받으시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1요한 4,11)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악을 행할 때에 이 악은 수십억 중의 하나일 뿐이고,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에 떨어진 그 사랑을 주신 분은 작지 않으며 우리 각자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큰 사랑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의 원인이 크지 않아도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이가 엄마에게 함부로 했을 때 어머니가 받는 상처는 아이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어머니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겠지요. 어린아이의 그림을 찢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렘브란트의 걸작을 칼로 긁는 것과 비교하면 별게 아니겠지요. 하느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느님의 열정과 사랑이 그만큼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실패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그토록 크게 상처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이 의롭기도 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교통신호나 세금과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덕법은 우리 몸 안에 물리법칙과 같아서 내부로부터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적어 두셨고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셨기"(예레 31,33 참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새겨진 양심을 믿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더 큰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더 심오한 신비를 이해하게 해 줄 겁니다. "죄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849항)

우리는 세상의 죄와 내 안의 죄에 대해 기도하여 그 실패를 능가하려 합니다.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청하는 은총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의 '속량'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는 무수히 나타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401항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다시 한번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을 숙고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할 때에 말씀이 주는 새로운 통찰력에 마음을 여세요.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을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세요.
2.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늘 하루의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숙고합니다. 너나없이 모두가 뉴스에 관심을 쓰고 정치와 경제 소식을 챙겨 봅니다. 당신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이 각자 자유를 활용하는 방식과 긴밀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성 바오로는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자아에 거슬러서 행동합니다. 가장 깊은 자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바오로는 말합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거기에서 구해 줄 수 있습니다.
4. 청하세요: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로마 7,14-25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
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
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
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단상

내 안의 죄는 신비이다

죄는 우리를 내밀하게 건드리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예술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악행을 저지르며 우리가 해야 할 선행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숙한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다룰까요? 먼저 죄가 우리 밖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마치 내전으로 포위된 도시에 있는 것과 같이 모두가 폭력적인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고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문 방송에서 매일같이 쏟아 내는 혐오의 감정입니다. 어린이들과 힘없는 노인들을 버려두는 사회이기도 하지요. 매일 벌어지는 이런 추한 현실이 하느님의 열정적인 사랑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죄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느님을 으뜸으로 삼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그와 반대로 은행과 학교, 미디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모두가 모든 것에 앞서서 작은 신들, 곧 이익과 즐거움과 권력,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에페 6,12)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염된 공기처럼 세상의 질서는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고, 우리 각자는 그것, 즉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행을 이용해야 하지요. 미디어와 정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유행을 생각해 보세요. 유행을 거스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렇게 해 보려다가 오히려 최신의 유행(혹은 변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업 관행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원칙들은 쌓여 갑니다. 앞서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지요.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는 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덩불 사이로 난 '길'을 찾기가 때로 어렵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매일의 삶에 흡수되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잊고 삽니다.

기도야말로 이것을 파악하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살아가면서 당신의 현재와 당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는 세상의 죄라는 신비(와 비참)에 대한 최선의 방어입니다.

메모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청하는 은총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그리스도교 계시는 창조주께서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본
성에 새겨 주신 사회생활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
리를 이끌어 준다.

-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 23항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때로 우리의 상상력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서 그것이 내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지 상상을 하는 거지요.
2. 이번 주간에: 교황과 주교단의 가르침을 기도의 맥락으로 삼아 보세요. 사회의 불의인 낙태, 여성에 대한 폭력, 기아
문제 등 사회의 불의를 줄기차게 비난해 왔습니다. 계시는 인간이 불가침의 존엄성과 생활권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지
만, 파라오는 그들의 탄원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종종 독재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파라오는 그들의 삶을 더욱 힘겹
게 합니다.
4. 청하세요: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탈출 5,1-19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흑사병이나 칼로 저희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너희 일터로 돌아가라.” 파라오가 또 말하였다.

“그들이 이제 이 땅의 백성보다 많아졌는데도, 너희는 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구나!”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예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 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어찌하여 임금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종들은 짚
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쉼을 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정해 준 수대로 만들어 내어라.”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은, “너희가 만들어야 하는 벽돌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날 일은 그날로 하여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알았다.

단상

세상의 죄

성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 중에 숙고할 때에 다음 두 가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첫째, “세상의 죄”는 세상이 악이며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비호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단지 봐 줄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이사 43:4)

두 번째 함정은, 우리는 모두 무죄하며, 타락한 것은 세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악은 아니지만, 그다지 무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무죄하게 살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에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 본성이 손상되어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교육, 정치, 사회 그리고 도덕 분야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07항)

이 중대한 오류에 어떻게 빠지게 되었습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것들이 “공동체적 상황과 사회 구조들”이 되어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들을” 행사한다고(『가톨릭 교회 교리서』, 408항) 설명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공동체적 상황은 뭘 말하는 걸까요? 당신은 이

미 여러 인종이 섞인 환경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사회는 ‘우리’와 ‘그들’로 나뉩니다. 공동체에 죄스러움이 구조화되었습니다. 다른 예를 보죠. 부모님이 오래 사시고 양로원에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소홀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집을 떠나면서 가족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세상 풍조에 따라 교회도 떠나지요. 우리는 모두 이런 공통의 상황에 살고 이 상황들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사회 구조들은 일상의 일이 됩니다. 많은 이가 저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넓은 집을 사는 데 현혹됩니다.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카드를 긁어 대는 소비자가 되고 맙니다. 젊은 부부들은 힘겹게 일하느라고 아이들 양육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둘 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버는 돈으로는 지금이든 앞으로든 쪼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탐욕의 구조들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형성해 온 혼돈에 대해 숙고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이 혼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청하는 은총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한 걸음 더

우리 중에 어떤 이는 하느님이 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하
실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어떤 이는 하느님은 지혜 자체가
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시며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 노리치의 줄리안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를 반복할 때에 처음에 영감을 얻거나 기도를 하게 된 단어나 구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들을 침묵과 신뢰 가운데 다시 찾아가 보는 겁니다.
2. 이번 주간에: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세상의 정의에 관한 교황 및 주교들의 가르침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활권이 불가침의 권리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모세가 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파라오와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경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4. 청하세요: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탈출 5,1-19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흑사병이나 칼로 저희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임금인 파라오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너희 일터로 돌아가라.” 파라오가 또 말하였다. “그들이 이제 이 땅의 백성보다 많아졌는데도,
너희는 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구나!”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예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 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어찌하여 임금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종들은

짚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정해 준 수대로 만들어 내어라.”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은, “너희가 만들어야 하는 벽돌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날 일은 그날로 하여라.”

단상

같은 일을 다르게 하기

세상의 죄의 결과들을 보여 주는 “공동체적 상황과 사회 구조”(가톨릭 교회 교리서, 408항)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중요한 은총을 알아차리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상황과 구조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미친 듯한 일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골로 2,12 참조) 우리는 성령의 선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랑과 기쁨, 평화 그리고 나머지 성 바오로가 열거한 대로입니다.(갈라 5,22 이하 참조)

이 선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이 현재의 삶 안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 죄스러운 세상의 혼돈 속에 그분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모두가 현 대통령을 “혐오하라”고 할 때에 당신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탈세를 시도할 때에 당신은 조용히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세금을 냅니다. 하느님은 모든 권위를 만드신 분이지요. 가사일이나 지루해 죽을 정도로 판에 박힌 사무실 업무를 볼 때에 하느님의 모상인 당신은 지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는 알콜이나 약물에 빠지고, 누구는 희망과 신앙을 잃게 되는 등, 당신 가족이 혼돈에 빠질 때에 당신은 성령에 힘입어 바위처럼 항구한 충실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위안이라고 한 것을 성령으로부터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변화가 요구되는 “공동체적 상황과 사회 구조”에서도, 하느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변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을 지키는 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와 대적하겠습니까?”(로마 8,31)라고 성 바오로는 열렬히 말하였지요. 때로 열정이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고된 일들이 거칠고 힘겨울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성 바오로보다 더 험난한 고난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야 낫겠지요. 아버지께서 두 분 모두 어떻게 구하셨는지 보세요.

메모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청하는 은총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한 걸음 더

죄는 나의 하루를 뒤흔들고 술렁이게 하여 폭풍에 사로
잡힌 작은 배처럼 만든다.

- 무명씨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죄 묵상은 많은 감정과 정서로 우리를 채우는데 어떤 것은 강렬합니다.
성인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하느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지금 약간의 시간을 사순절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 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음을(갈라 1.4) 기억합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극히 보수적인 이가 예수님이 사회적 관습을 저버렸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때로 사회적 관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뜻을 건너뛰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어쨌든 진짜 사악함은 외적인 데에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옵니다.
4. 청하세요: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15,1-14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느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이르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단상

내 안의 죄

우리의 깊은 갈망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이미 숙고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갈망들이 그 사랑의 불로 충만할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필요에 따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갈망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대상인 줄 알면서도 그리워하고 갈구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긴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의 갈망을 현실적인 갈망과 진정한 갈망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분명하게 봅시다. 성숙한 제자는 근본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모든 것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열망의 결포장입니다. 그것을 살아 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압니다. 고객에게 모욕을 당하면 복수심이 올라옵니다. 되짜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갈망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일요일 아침에 집에서 느긋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고요를 누리다니! 그러나 당신의 참자아는 매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곧 주일미사에 가겠다는 말입

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때그때 원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기로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나자렛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는 살해당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랐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랬던 거죠. 살해당하는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또 다른 갈망도 있었습니다. 더 깊고 자신의 온전한 자아에 진실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원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요한 17:4 참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치유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가 가르치고 치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구체적인 갈망들 중에서 더 깊고 진정한 하나의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아버지께서 그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그는 준비가 됐습니다.

메모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청하는 은총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한 걸음 더

약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자의 속성이다.

- 마하트마 간디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하느님은 당신이 뭘 원하는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일러 주시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관대하게 열어 두세요.
2. 이번 주간에: 갈망이 영혼에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주님께 들어 높여 주님의 축복, 아니면 주님의 교정을 받으세요.
3. 주 묵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하느님의 법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직과 투명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린다고 보았습니다.
4. 청하세요: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15,1-14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이르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

단상

열망과 다른 이들의 영향

우리의 바램은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열망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열망에 영향을 미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고기 무리나 거대한 새 떼의 사진을 보면 수천수만의 무리가 마치 현악기처럼 조화를 이루어 움직입니다. 우리도 멀리서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어느 해에는 모두가 짙은 회색 옷을 입고 다음 해에는 옥색 옷을 입습니다. 자동차도 어느 해에는 둥근 형이 유행하다가 다음 해에는 각진 형이 유행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오르간으로 반주를 했는데, 갑자기 모든 성당에서 기타가 반주의 대세가 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가정예배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사진을 걸어 놓곤 하였는데, 요즘에는 풍경화나 추상화(혹은 인기 연예인 사진)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세계 어디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욕구들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여 혼란스러운 것처럼, 너무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관심사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만일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성향이 뚜렷한 한 방송국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면, 진보팔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재정적 안정에만 있다면, “하늘의 새들과 들의 백합들”이 끼어들 자리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정치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있으려 한다면, “시저에게 돌려라.”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제로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계속 성찰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삶의 일부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한결 강한 욕구에 대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식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도와 성찰, 충분한 학습과 성숙하고 거룩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모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청하는 은총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한 걸음 더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그토록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 로울라의 이냐시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열망에 차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이번 주간에: 많은 영성작가들이 말하는 것에 유의하세요.
하느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으려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38년이나 앓고 지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낫기를 바라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는 우물쭈물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 주도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4. 청하세요: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요한 5,2-9

예루살렘의 '양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다섯 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 이, 다리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기쁜 소식: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

“의인”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당신이

진정한 회개는 그분께 감사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청하는 은총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한 걸음 더

딸아, 왜 너는 나를 버렸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 신비가 마저리 캠프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 중에 슬퍼지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성 아우구스티노는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 사순절 내내 하는 단식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세요. 많은 성인들과 영성 작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그에게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는 왜 38년 동안 병에서 낫지 못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4. 청하세요: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요한 5,2-9

예루살렘의 '양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다섯 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 이, 다리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느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단상

양심성찰에 대하여

진지한 제자가 영적인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양심성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가 “죄를 지은 게 없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성찰은 고해성사의 준비가 아닙니다. 첫째, 양심성찰은 옳은 것을 성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주 하느님이 당신에게 부어 주신 온갖 선물들에 대한 성찰입니다.

사실 양심성찰은 당신 자신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매일 하는 영적 수련입니다.) 당신의 하루 생활과 태도와 행동을 성찰합니다. 그러나 이 성찰은 화해성사를 보기 위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하느님에게서 힘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다.”(1코린 2,12)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넘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생명 자체에서 시작해서 오늘 날씨와 사건들까지 모두가 선물입니다. 당신이 함께해 온 가족과 친구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유와 함께 엄청난 천연자원이 부여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와 진취성과 열정에 에워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임으로써 창조주 앞에 겸손해지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양심성찰의 큰 초점입니다. 당신 자신의 현재 모습과 가진 것에 점점 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이신 하느님이 당신을 보는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1코린 1,9)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심연에서부터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한 모든 것을 정직하고 현실적으로 성찰하게 해 줍니다. 당신은 선한 일에 기뻐하고, 당신의 하느님과 선물과 당신 자신에게 잘못하고 실패한 데가 어디인지를 기꺼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찰하면서, 당신이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찾고 싶을 겁니다. 어떤 죄나 실패, 실수를 저질렀는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 향하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입힐 때 하느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드러서 죄송합니다. 그 슬픔은—후회가 아닌 회개의 슬픔—변화와 혁신을 가져옵니다.

양심성찰의 기본틀은 이러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빛을 받으세요. 당신이 한 일이나 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슬퍼하게 두세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세요.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잠언 17,22) 이것이 양심성찰의 길입니다.

메모

표지석

-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혐오하지 않게 해 준다.
-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행하는 죄를 더 미워하게 된다.
- 인간의 죄에서 가장 깊은 신비는 이것이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느님이 우리 각자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배려하시어, 자신과 타인을 해치기도 하는 우리를 돌보신다.
- 세상의 죄는 우리가 들이마셔야 할 공기가 오염된 것과 같다. 그것은 원자로가 폭발할 때에 방사능이 모든 사물에 침투하는 것과 같다.
- 이것이 유혹이다. 카운터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지만 사실 갖고 싶다. 나는 정직하게 그것을 매니저에게 돌려주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아가 진정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유혹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 다른 사람들의 욕망(갈망)이—그리고 광고와 대중매체들이—우리의 욕망(갈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다.
- 인간의 죄스러움에서 결정적 전환점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무한히 자비롭게 사랑하신 다는 사실이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과 동반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